

白湖 林悌의 「南溟小乘」研究

부 영 근*

차례

1. 머리말
2. 紀行 描寫의 特徵
3. 作品에 投影된 濟州의 모습
 - 1) 泉石之趣
 - 2) 異國之趣
4. 紀行史的 價値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濟州道는 본토와는 사뭇 다른 自然風光과 地域 文化를 간직해 온 곳이다. 《三國史記》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래로 제주도가 본토의 영향권 내에 편입된 후로도 오랜 동안 독자적인 風土를 간직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리상 본토와 격절되어 있기 때문이겠다. 그런 까닭에 濟州道民에게 있어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본토의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이국적인 섬의 풍물은 물의 사람들에게는 호기

* 대구한의대 연구교수(한국학술진흥재단 주자대전 번역팀 전임연구원)

심 어린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여 먼 옛날부터 仙界的인 지역으로 상정했으니 제주도를 이른바 海外三山의 하나로 보아 '瀛洲'라 불렀던 것도 그러한 측면의 고전적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지역의 풍토상 사람이 살기에 그리 적합한 곳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해상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항해 자체가 모험적 행위여서 난파되어 죽거나 바다를 표류하는 경우도 빈번했으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제주도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다. 따라서 위험이 도사린 바다를 건너 제주도를 방문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유람의 길을 떠난 여행객 보다는 외적인 강제에 의하여 발을 디딘 사람이 더 많았다. 외적 강제의 경우에는 무거운 죄를 짓고 유배 온 죄수이거나 관리로 임명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느 경우이든 범선을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들어온 이들에게 있어 항해의 체험과 濟州道의 風土 產物은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견문했던 바를 기록하여 문헌으로 남겨놓은 경우 그 路程이나 풍토 풍물에 대한 기록은 옛 제주도의 면면을 살펴보는 데에 값진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白湖 林悌(1549~1587)가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은 당시 濟州牧使로 있던 부친 林晉을 만나 뵙기 위해서였다. 白湖는 대과에 급제한 직후인 그의 나이 28세 때 1577년 11월 초순에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이 여행길의 여러 체험을 통해 「南溟小乘」이라는 日記體의 紀行 詩文을 남겨 놓았다.

임제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의 39세 동안의 짧은 삶의 여정에서도 이른 문학적 성과에 걸맞게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¹⁾ 그에 비해 개별 작품이

1) 김창식, <임제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박입규, <임제의 한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1.
 서정희, <임제의 시문학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윤주필, <임제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1.
 박윤수,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정학성, <임백호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채경자, <백호 임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1.

기는 해도 짧은 삶의 과정에서 혼을 담으려 했던 「南溟小乘」에 대한 연구는 소재영과 윤치부의 논문²⁾이 전부이어서 매우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행적 연구로 「南溟小乘」에 나타난 제주 풍토 묘사의 특징을 밝히고 본격적으로 그의 천석에 대한 정취를 알아보고 그가 드러내려 했던 제주의 이국적 정취를 살펴서 「南溟小乘」이 가지는 기행사적 가치를 밝히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白湖가 천재적인 문학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제주 풍토를 묘사한 「南溟小乘」의 가치가 그의 文名에 걸맞게 드러나리란 기대를 가진다.

2 紀行 描寫의 特徵

白湖 林悌(1549~1587)가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은 당시 濟州牧使로 있던 부친 林晳을 만나 뵙기 위해서였다. 白湖는 대과에 급제한 직후인 그의 나이 28세 때 1577년 11월 초순에 제주도를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이 여행길의 여러 체험을 통해 白湖는 「南溟小乘」이라는 日記體의 紀行詩文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渡海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풍물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은 제주도로 가는 험한 뱃길에 고생하는 대목이다.

백 여러쯤 갔을 때 바람이 마구 뒤집고 바다가 험악하여 큰 물결이 하늘을 쳐서 뚫대꼭지가 잠겼다 드러났다 하여 半空의 뜬 구름과 더불어 서로 오르내렸다. 배 안의 사람들이 온통 토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절반이 넘었다. 나 역시 선실로 들어와서 누웠더니 마치 그네를 탄 것 같았다.³⁾

2) 소재영, <임제의 '남명소승' 고>,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 7, 탐라문화연구소, 1987.

3) 林悌, 「南溟小乘」, 11월 9일, 行白里許 風顛海惡 大浪擊天 危檣出沒 與半空浮雲 相互低昂 舟中人之嘔吐 不起者過半 余亦入臥蓬底 如在秋千上

문명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요즘에도 제주 바다를 건너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험난한 파도와 싸우는 모습을 뱃머리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구쳤다고 하고 배안의 혼잡한 광경과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白湖는 그로부터 약 4개 월 가량을 체류하면서 유람하다가 이듬해 3월 초순에 귀로에 올랐다. 「南溟小乘」에 나타난 白湖의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①1577년 11월 3일에 楓浦를 출발하여 康津 莞島 白島를 경유하여 11월 9일 朝天館에 이른다.
- ②11월 10일에 望京樓에서 부친을 뵈다.
- ③11월 19일에 金淨의 謫居 舊址를 찾아가다.
- ④11월 22일에 관광에 나서 김녕포 성산 우도 등을 둘러보고 24일에 西歸浦 防護所에 투숙하다.
- ⑤11월 25일 천지담 천제연 존자암 등을 구경하다.
- ⑥11월 26일 송악산에서 遊賞 晩早里 石窟을 구경하고 明月 防護所에서 묵다.
- ⑦11월 27일에 망해정 都近川을 돌아보고 제주로 돌아오다. 郭支里의 私奴 連斤의 처인 千德의 守節談을 쓰다.
- ⑧이듬해(1578년) 2월 5일 한라산 등반을 작정하고 詩를 짓다.
- ⑨2월 10일에 한라산 등반에 나서 尊者庵에 들어가다.
- ⑩2월 11일에 五百將軍洞을 구경하다.
- ⑪2월 12일에는 구름이 깊어 존자암에 머물며 白雲名篇을 짓다.
- ⑫2월 15일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頭陀寺와 雙溪菴을 거쳐서 하산하다.
- ⑬2월 16일에 제주로 돌아와 부친을 뵈다. 冲庵遺墟를 돌아보고 迎送曲을 짓다.
- ⑭2월 그믐날 別刀浦에서 부친과 작별하고 楸子島 黃魚浦에 닿다.
- ⑮3월 5일 고향에 도착하다. 5일후 다시 北征길에 오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4개월간의 제주도 여행 중에서 기술된 일자는 한 달을 조금 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담고 있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풍부하여 제주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고 인생관 내지 자연관을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기록 자체는 대체로 日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중간 중간 그날에 지은 시를 附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와 산문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문의 딱딱함을 유희시키고 서정적 효과를 아우르도록 하고 있다.

11월 22일자 기록의 일부분을 살펴보자.

이에 노인들과 작별하고 채찍을 재촉하여 別防城에 당도하니 밤이 거의 이경이었다. 旅帥가 횃불을 벌려 세우고 영접하는데 城은 州와의 거리가 칠십 육리라는 것이다. 旌義縣 태수가 사람을 보내어 기다리고 있으니 여처구니없는 일이다. 조출하게 나선 행색이 이미 소식을 누설시키고 말았으니 기운이 항상 따뜻하여 눈이 오면 바로 녹는데 한라산 산정은 눈이 쌓여 천 길이나 하야므로 선계를 찾아가는 것은 봄에나 기약을 할 수 있다. 이에 思仙謠를 지었다.

꿈속에서 황학을 타고 영주로 찾아 가니
그곳의 신선님 네 나를 보고 맞이한다.
星冠이라 霞佩에 구름 수놓은 옷
그 신선 내게 준 金丹 알알이 좁쌀모양
경루에서 다시 놀기로 훗날 기약 두었거니
벽도화 시드니 만년이 어제라오⁴⁾

말하자면 旅路에 대한 소개와 주변 풍광에 대한 서술은 散文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경물로 감발된 흥취나 자연경물에 대한 서경은 다시 詩를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南溟小乘」에 삽입된 詩는 모두 그의 문집에 재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시편들의 창작 동기나 내용을 정밀하게 탐색하는 데에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林悌, 「南溟小乘」. 於是 與父老爲別 促鞭到別防城 夜將二鼓 旅帥列炬相迎 城去州以七十六里 旌義太守 嗚人相候可笑 寂寥行色已被透漏消息也 地氣常暖雪落便消 而漢筆山一積縞千丈 故洞府尋眞春 以爲期 乃作思仙謠 夢騎黃鶴尋灩洲 中有仙人見我損 星冠霞佩繡雲衣 贈我金丹如粟粒 瓊樓他日約重遊 碧桃花老千千秋.

「南溟小乘」의 기본적인 서술 체계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기와 시의 결합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연한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내용들이 중간에 개재되어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白湖는 人物傳을 한 편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南溟小乘」의 11월 27일자 기록에 千德이라는 여인의 傳이 실려 있어 관심을 끈다. 간략히 소개하면 郭支里의 私奴인 연근의 아내 千德이 배가 침몰하여 죽은 남편을 평생 잊지 못하고 수절하다가 수차 흉악한 무리에 의해 해를 받았으나 끝내 정절을 지켰다는 내용이다. 千德이 열녀의 도리를 다한 것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부기하고 있다.

嘯癡(作者)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덕은 남쪽 땅의 한 하녀이다. 호미질 하고 밭 매는 것이 그 직무인지라 당초에 규문의 법도가 없었으며 배 짜고 길쌈하는 것이 그 업인지라 어찌 여훈의 규범을 익혔겠는가. 그러나 그 일심으로 사람을 섬김에 있어 절조가 우뚝하여 심상한자로서는 논의조차 못할 만한 점이 있으니 이야말로 천성이 순수하고 조용하며 배움을 기다릴 것도 없이 능한 경우이다. 그렇다면 性善의 說은 더욱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아! 세상의 소위 남자인 자들도 하나의 이해관계로써 심지어는 형제가 서로 싸우고 부유가 서로 배신하여 크게는 板蕩한 때와 危亂의 즈음에 당하면 나라를 파는 자도 어버이를 잊는 자도 있나니 千德에게 죄인이 되지 아니할 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슬픈 일이다.⁵⁾

우선 미천한 신분 출신을 입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흥미롭거니와 千德이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관과 결탁하여 자신을 범하려는 음모를 간파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대목이나 또 明月所의 旅帥의 간계를 죽음으로써 항거하여 고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5) 林悌, 「南溟小乘」. 嘯癡曰 千德南荒一下女耳 鋤耘是事 初無閨門之範 紡織是業 豈習女訓之規 而其一心事人 節操特立 有非尋常之所可擬議 此豈天質純靜 不待學而能性善之說 尤不可誣矣 嗚呼 世之所謂男子者 一利害之間 而至於兄弟而相鬪 朋友而相倍 大則板蕩之時 危亂之際 賣國者有焉 忘親者有焉 而其不爲千德之罪人者 鮮矣 可哀也哉

千德은 삼국사기 열전이나 삼국유사의 <孝善篇>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일자무식한 벽도 촌부인 千德의 정절과 효성을 들어 白湖는 성선설에 긍정적 갈채를 보내고 있다. 이 千德傳은 한편의 훌륭한 단편소설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상에서 白湖는 제주의 풍토를 묘사하기에 앞서 우선 도해의 어려움을 소개하고 제주에서의 여정을 설명하는 대목까지는 다른 작품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서술 방법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로에 대한 소개와 주변 풍광에 대한 서술은 散文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경물로 감발된 홍취나 자연경물에 대한 서경은 다시 詩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또한 곽지리의 천민인 千德을 입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3. 作品에 投影된 濟州의 모습

「南溟小乘」에는 모두 24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임형수 절제사의 시 한 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23수는 白湖가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4개월 동안의 여정 중 기록된 일정이 한 달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거의 매일 한편의 시를 지은 것이 된다.

이 중에서 시제를 붙인 것은 <醉吟一篇> <口占一律> <五言長律> <思仙謠> <五言古詩> <寢屏詩> <漢拏長律> <步虛詞> <白雲名篇> <撥雲歌> <迎朗曲> <迎送曲> 등 12수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次韻詩이다.

1) 泉石之趣

白湖의 인생을 돌아 볼 때 1577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조정랑 겸 지제교를 지내다가 동서 양당의 싸움을 개탄하고 명산을 찾아다니며 여생을 보냈으며 봉건적 권위에 반항했던 인간으로써 자유분방한 인생 자세를 견지했으며 시문을 통해서 그 만의 낭만성을 나타내려 하였다. 죽기 전 조선과 같이 좁은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豪放性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다음은 冲庵 선생의 謫居地를 찾아가서 지은 것이다.

痛哭冲菴老	슬프다 충암 선생이여
平生學孔周	평생토록 공자를 공부하였네.
經綸空消志	세상을 건지려는 그 뜻이 헛되어
炎瘴竟孤囚	무더운 곳에 외로운 죄수 되었던가.
故國魂千里	혼백은 멀리 고향으로 갔으나
荒城迹一丘	황폐한 성에 한 둔덕 흔적이 남았구나.
賢侯新廟貌	어진 원이 새로 세운 사당에
遠容此來遊	멀리서 온 나그네 와서 노니네.6)

12월 9일 冲庵 김정이 귀양 와 살던 옛터가 매우 경치가 좋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둘러보고 지은 오언 율시이다. 주지하듯이 冲庵은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금산에 장배 되고 다시 제주에 안치되었으며 얼마 있다가 사사되었다.

이곳에서 白湖는 평생토록 공자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세상을 건질 꿈을 키웠으나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죄수의 몸으로 고향 멀리 절해고도에서 세상을 떠난 冲庵을 애도하며 시를 지었다. 白湖는 제주에 도착하여 제주를 여행함에 있어 冲庵의 묘소에 참배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려운 뱃길을 마다하지 않고 건너온 제주에서 그가 처음 찾은 곳은 적막한 한 귀양인의 묘소이다. 물론 冲庵의 生平은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받고 싶은 선비의 기본적인 삶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인들이 여행하는 과정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나아가 白湖의 경건히 참배하는 모습에서 비장미까지 느껴진다. 그렇다면 白湖의 제주 여행은 들뜬 나그네의 번잡한 행차라기보다 그간의 삶을 돌아보고 세속을 버리고 앞으로의 자연에 묻힌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白湖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부 임봉이 조광조의 신원을 위해 자진 투옥되려 했던 사실

6) 12월 19일, <오언장률>

을 계승하려고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다가 이곳에 유배되어 결국 사사된 冲庵의 묘소에 참배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白湖가 동생과의 처음 대면을 노래한 것이다.

婦人愛少子	부인은 아들을 아꼈고
慈母偏憐爾	젋어미는 너를 유독 불쌍히 여겼네.
汝年六歲時	네 나이 6세 때에
哀哀失所持	슬프게도 어머니님 세상 떠나셨네.
立雛七秋霜	두둑에 홀로 계신지 칠년 동안
兄科母不識	네가 과거한 줄도 모르셨네.
正月二十六	정월 이십육일에
乃汝初度日	네가 너를 만난 처음이네
却念母劬勞	문득 어머니의 고생하심을 생각하니
欲報恩罔極	은혜를 갚고자 하는 심정 다함이 없구나.
母今若生存	어머니께서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行年爲五十	올해로 오십일 것이다.
汝能讀經史	네가 경서와 사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니
清晨對汝泣	혼정신성의 자리에서 너를 대하여 눈물이 나네. ⁷⁾

이 시는 1578년 1월 26일 어머니를 6세 때에 여의고 엄친 슬하에 있었던 막내 동생 恠과 처음으로 하루를 보낼 때 슬픈 생각이 나서 지은 오언 고시이다. 그래서인지 시종 思母의 정과 동생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묻어난다.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白湖는 시의 전반부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아쉬워하며 그리워하였다. 중반부에서 사무치는 사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통해 하였다. 결말부에서 그는 어머니 없이도 잘 자라 이제 의젓하게 경사를 읽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들어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든다. 외형적인 시의 분위기나 내면의 모습이 어머니 없이도 훌륭히 자란 동생을 처음 대하고 대견스러워

7) 1월 26일

하는 흐름인데 어쩐지 자신의 감정을 동생이란 매개체를 통해 수줍은 듯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어머니가 없이도 대과에 급제하고 아버지를 만나 뵈러 왔는데 여기에도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애절한 동생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 하나 빈자리만 더 할 뿐이다. 그렇다면 白湖가 자라는 과정에서 항상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감정이 일정부분 정서로 자리 잡아 그가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만드는데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白湖는 이미 세속에 떠나 있었다.

玉洞朝眞鶴鶴歸	옥동에서 진인을 조회하고 학 타고 돌아오니
晴雲低濕紫煙衣	맑은 구름 드리워 노을을 적시네.
殘棋一局海天曉	바둑판은 남았는데 수평선의 하늘로 동이 트니
月照瑤壇星斗稀	달은 옥으로 된 단을 비추고 별빛은 희미하네.8)

주지하듯이 <步虛詞>는 잡곡가사의 이름인데 나라에서 잔치를 할 때 이뤄던 창사의 일종으로 여러 신선들이 가볍게 공중을 떠다니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바로 자기가 신선이 된 양 옥동에서 진인들을 조회하고 학을 타고 돌아다니며 새벽녘까지 바둑에 몰입하며 아무런 세속의 욕심이 없는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였다.

이러한 白湖의 호방함은 집안 내력과는 무관하지 않다. 임제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조부와 백부의 처신도 임제로 하여금 한편으로 강개한 성격을 형성하고 풍류에 몰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조부 임봉은 젊은 시절 조광조의 신원을 위해 자진하여 투옥되겠다고 까지 하였고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청직을 역임하였는데 훗날 김안로의 당여가 되어 승진을 거듭하여 사림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종 7년 무렵(1552) 나주목사를 자청하여 향리로 내려와 나주 영산 곁에 歸來亭을 세우고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9)

8) 2월 11일, <步虛詞>

9) 이종묵, <백호 임제 한시의 문예미학>

타고난 임첩의 기질 그리고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인생의 황금기를 변방에서 떠돌아야 했던 울분과 강개 등의 요소가 임제 한시의 미학을 형성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步虛詞>의 내용 역시 이러한 임제의 전체 한시의 정신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2) 異國之趣

「南溟小乘」은 遊覽記의 성격이 중심이지만 風物誌의 성격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면의 일단을 11월 27일자 기록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부분에서 제주도의 위치와 두 개의 縣 및 三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¹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¹¹⁾ 또한 토질 및 동물 분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민간의 풍속과 특이한 語音 해산물과 과일 등 특산품에 대해서도 언급이 미치고 있다.¹²⁾ 그리고 그는 제주의 명소를 다녀보고 그것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시화하기도 하였다.

다음 시를 보자.

가)

海畔巘屹石	바닷가에 삐죽삐죽 높이 솟은 돌인데
龍頭漫設名	용두암 이름은 부질없이 지었구나.
洪濤日夜擊	커다란 물결이 밤낮으로 때리니
猶作風雷聲	마치 바람과 천둥소리 같구나. ¹³⁾

10) 林悌, 「南溟小乘」. 島在國之正南 而漢拏山峙其中 張左右翼如一字橫浦 濟州一鎭在北而際海 與頭無岳相對 旌義縣在右翼之南 大靜縣在右翼之南 而三鎭爲鼎足之勢 各據北東西南三隅.

11) 林悌, 「南溟小乘」. 所蓋島間於中原倭島 而倭寇之往來中原也 必由濟州楸子之間 則島之東西 爲要衝而防護之緊不在南 可乎.

12) 林悌, 「南溟小乘」. 11월 27일.

13) 2월16일, <龍頭巖>

나)

昔有三異人 옛날에 세 분 이인이 계셨는데
湧出於茲島 여기 이 섬으로 솟아서 나오셨네.
古穴餘鼎分 옛날의 구멍은 솔밭처럼 나뉘어졌는데
埋沒生春草 파묻혀 없어지고 봄풀만이 자라네.

(缺)

奇蹤問未能 기이한 발자취 묻지도 다 못하여
日暮牛羊道 우양이 가는 길에 해가 저무네.¹⁴⁾

가)와 나)는 白湖가 제주 명소의 죽경을 읊은 것이다. 가)는 龍頭巖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고 나)는 탐라국 개국 신화의 발생지로 유명한 毛興穴 곧 지금의 삼성혈을 읊은 것이다.

龍頭巖은 제주를 대표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제주의 상징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다. 백호는 전반부에서 소문이 무성한 龍頭巖의 위상을 한번 보고 실망한 듯 뼈죽뼈죽 바닷가에 높이 솟은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승천하는 용의 이미지를 살려 龍頭巖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칭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진다. 그러나 그도 잠깐 커다란 물결이 설 새 없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물보라와 천둥소리 같은 파도 소리에 용의 승천하는 기상을 느끼기에 충분함을 깨닫고 거침없는 호방한 자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三姓穴이 어디인가! 고대국가 시절 한 왕조의 기운이 모여져 금방이라도 몽클몽클 솟구칠 것 같은 이곳에서 탐라국을 열었던 高乙那 夫乙那 梁乙那의 모습을 상상할 만한데 세월 앞에 봄풀만이 무성한 모습에서 얼마간 무상함을 드러내었다. 길재 선생이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 데 없다”며 몰락한 고려왕조의 모습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白湖 역시 역사의 뒤편길에서 비상감이 온 몸으로 파고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낳고 있다.

또한 2월 16일자 뒷부분의 기록에는 冲庵祠堂의 記文이 실려 있고, 특

14) 2월16일, <毛興穴>

히 <迎郎曲> <送郎曲> 등이 詩가 실려 있음이 주목된다. 이들 시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을 보면 이 작품들은 여성이 훨씬 많은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속에서 취재한 것으로 기속적 경향의 시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짝을 이루지 못한 여인들이 매년 3월이면 화장을 하고 술을 들고서 援兵赴防하러 섬에 들어오는 남정네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 살다가 8월 罷防할 때 그들과 슬픈 이별을 한다는 내용인데 耽羅의 일부다처의 현상과 <迎郎曲> <送郎曲>의 기사가 《芝峰類說》가운데도 이미 보이는 것을 보면 그런 풍습이 오래 전승되어 오는 듯하다.

다음은 附記되어 있는 白湖의 <迎郎曲> <送郎曲>이다.

三月三日桃花開	삼월이라 삼진날 복사꽃 활짝 피어
雲帆片片過海來	돛단배를 두둥실 바다를 건너와서
妍粧調笑別刀浦	단장 곱게 하고 별도포서 노닐다가
岸上斜陽連袂廻	해지는 언덕위로 팔짱끼고 돌아온다네.
朝天館裏泣愁紅	朝天館안에서 연분홍 눈물 적시는데
黃帽催行理短蓬	사공은 어서가자 돛을 바빠 올리네.
東風不道娘娘態	마파람이 새 각씨 심사를 아랑곳 았고
吹送飛舟度碧空	배를 얼른 날려 碧空으로 떠가누나.

앞의 네 구절은 <迎郎曲>에 해당되고 뒤의 네 구절은 <送郎曲>이다. 삼월 삼진날에 복사꽃이 흐드러질 때 돛단배를 통해 들어오는 병사들을 마치 바다에 나갔다가 물귀신이 된 줄 알았던 낭군이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양 반가이 맞이하는 모습에서 당시 제주 여성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아 돌아올 기약 없는 이별을 사지의 뱃길로 보내는 낭군처럼 눈물 콧물 흘러가며 애절하게 헤어지거늘 남의 마음 아랑곳 았고 미끄러지듯 시야에서 사라지는 배의 모습이 새로운 것도 아니련만 늘 기다리는 아낙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白湖는 앞의 <迎郎曲>에서의 화사하고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送郎曲>의 기약할 수 없는 이별에 아쉬워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어 시상을 고조시키고 이국적인 풍물을 세상에 알리려 하였다.

그 뒤의 기록으로는 <橋袖譜>가 있어 제주산 귤과 유자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놓았으며 그 다음에는 靈芝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식물에 대한 설명이 있다. <芝圖附錄>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화보가 함께 실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南溟小乘」은 유람한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도 뛰어나지만 전반적으로 형상성이 탁월하고 설화적 요소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인물 군상이 출현하여 작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점은 여행의 체험 자체를 입체적으로 생생히 전달하여 독자에게 보다 큰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작자의 의도적인 표현기법으로 보인다. 예컨대 왜국의 섬에 잡혀 갔던 덕돌이라는 인물과의 이야기 金寧浦에 사는 노인들과 나는 불로초 이야기 尊者庵에서 승려와 남극성에 대해 담론하는 대목 등의 짧은 담화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글의 흥미를 배증시키는 수법에서 白湖의 글재주를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4. 紀行史的 價値

상술한 것처럼 제주의 풍토를 묘사한 작품으로 金淨(1486~1521)이 쓴 「濟州風土錄」과 李健(1614~1692)의 「濟州風土記」는 유배 생활 중에 견문한 제주도의 여러 풍토를 기록한 것이고 金尙憲(1570~1650) 「南槎錄」과 李源祚(1792~1871)의 「耽羅錄」은 관리로 파견되어 공무를 집행하는 여가에 둘러 본 제주도의 풍광을 주로 그린 기록물이다. 그리고 林梯(1549~1587)의 「南溟小乘」이나 崔益鉉(1833~1906)의 「遊漢拏山記」는 일종의 遊記라고 할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를 묘사한 기행류의 작품들을 시대적으로 얘기할 때 冲庵의 「濟州風土錄」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으로 林梯(1549~1587)의 「南溟小乘」이 놓이고 이후로는 金尙憲(1570~1650)의 「南槎錄」, 李健(1614~1692)의 「濟州風土記」, 李源祚(1792~1871)의 「耽羅錄」, 崔益鉉(1833~1906)의 「遊漢拏山記」 순이다. 물론

제주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성종 조에 李荇(1478~1534)이 갑자사화 때에 응교로써 폐비 윤씨의 복위를 반대하다가 충주에 유배되었고 이어 함안에 이배되는 과정에서 지은 시들을 남천록이라 명명하였고 이듬해 거제도에 유리안치 되었는데 도해의 과정에서 지은 시를 해도록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러한 기록들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그 당시 신진 사류였던 冲庵 김정과는 연산군의 비 신씨의 복위문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였지만 문학적인 교감은 얼마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白湖의 「南溟小乘」은 冲庵의 「濟州風土錄」을 이어 받아 淸陰의 「南槎錄」과 자리를 이어주고 이어 葵窓의 「濟州風土記」를 거쳐 勉菴의 「遊漢拏山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南溟小乘」은 일정 부분 가교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상호 관련성은 내용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冲菴의 「濟州風土錄」에서는 제주도의 風土와 風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단락을 구분해 보기로 한다.

- ①해양성 기후로 안개와 바람이 잦고 여름은 찌는 듯 덥고 답답하다.
- ②초가집에 방바닥을 파서 온돌을 대신하기 때문에 풍토병이 많다.
- ③무당이 많고 폐해가 극심하며 淫祀 등 여러 미신이 횡행한다.
- ④토속적 신앙으로 뱀을 숭상하여 감히 쫓아내거나 죽이지 않는다.
- ⑤말소리가 가늘고 높아 마치 침으로 찌르는 것 같다.
- ⑥짐은 지고 머리에 얹지 않으며 절구는 있으나 방아가 없다. 옷도 손으로 두드리며 풀무는 밟지 않고 손으로 체를 부린다.
- ⑦당시 제주도는 아적인 미개한 사회이며 관원들의 횡포도 대단히 심하다.
- ⑧중은 주로 대처승이며 사람들을 겁박하여 괴롭힌다.
- ⑨한라산이 중앙에 위치하여 한눈에 모든 바다를 보기가 어려우며 돌이 많고 토질이 척박하다.
- ⑩물이 귀하며 많이 갖고 가려고 반드시 나무통으로 길어간다.
- ⑪본토에 흔한 산물이 귀한 경우가 많으며 소 값은 싼 대신 맛이 없고 소금도 귀하다.
- ⑫제주도에는 특산물이 많으며 꿀의 종류에는 무려 9종이 있다.

白湖는 약 넉 달 가량을 제주에 체류하면서 유람하다가 이듬해 3월 초순에 귀로에 올랐다. 「南溟小乘」에 나타난 白湖의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①1577년 11월 3일에 楓浦를 출발하여 康津 莞島 白島를 경유하여 11월 9일 朝天館에 이른다.
- ②11월 10일에 望京樓에서 부친을 뵈다.
- ③11월 19일에 金淨의 謫居 舊址를 찾아가다.
- ④11월 22일에 관광에 나서 감녕포 성산 우도 등을 둘러보고 24일에 西歸 浦 防護所에 투숙하다.
- ⑤11월 25일 천지담 천제연 존자암 등을 구경하다.
- ⑥11월 26일 송악산에서 遊賞 晩早里 石窟을 구경하고 明月 防護所에서 묵다.
- ⑦11월 27일에 망해정 都近川을 돌아보고 제주로 돌아오다. 郭支里의 私 奴 連斤의 처인 千德의 守節談을 쓰다.
- ⑧이듬해(1578년) 2월 5일 한라산 등반을 작정하고 詩를 짓다.
- ⑨2월 10일에 한라산 등반에 나서 尊者庵에 들어가다.
- ⑩2월 11일에 五百將軍洞을 구경하다.
- ⑪2월 12일에는 구름이 깊어 존자암에 머물며 白雲名篇을 짓다.
- ⑫2월 15일 한라산 정상에 오르고 頭陀寺와 雙溪菴을 거쳐서 하산하다.
- ⑬2월 16일에 제주로 돌아와 부친을 뵈다. 沖庵遺墟를 돌아보고 迎送曲을 짓다.
- ⑭2월 그믐날 別刀浦에서 부친과 작별하고 楸子島 黃魚浦에 닿다.
- ⑮3월 5일 고향에 도착하다. 5일 후 다시 北征길에 오르다.

葵窓 李健의 「濟州風土記」는 그 체제 상 沖庵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마찬가지로 일자별로 서술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적고 있다. 아래와 같이 대략 13단락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 ①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와 제주도를 왕래하는 당시의 상황
- ②제주도에 散在한 뱀과 독특한 풍속이라 할 뱀 신앙의 -面
- ③무더위 속에서도 민정들을 징발하여 한라산 上峰에서 얼음을 캐 오게 하는 관의 횡포

- ④ 제주도의 목축 상황과 牧養하는 이의 어려움
- ⑤ 제주도의 농경 상황과 보리를 주곡으로 하는 농경의 어려움
- ⑥ 물동이를 지는 등 제주도 여인의 독특한 풍습
- ⑦ 제주산 橘의 종류와 궤의 進獻
- ⑧ 해산물과 잠녀들의 풍습 그리고 관원들의 횡포
- ⑨ 神堂과 神祠 등 민간 신앙에 관한 풍속
- ⑩ 제주도의 동물식물의 현황
- ⑪ 高粱夫 三姓神話
- ⑫ 金萬鎰의 屯馬에 관한 기술
- ⑬ 제주에서의 流配狀況과 解配된 작자의 心懷

冲庵의 「濟州風土錄」에서 비롯된 제주 풍토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 여행의 과정이나 풍물의 소개 혹은 민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사안에 따라 얼마간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관심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특산품 궤에 대한 관심은 비록 白湖가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南溟小乘」 끝자락에 <橘柚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더구나 청음의 「南槎錄」에서는 감귤류 進貢數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南溟小乘」은 우리나라 기행사의 자료로써 혹은 풍속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내용적으로 제주의 풍물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지방 문화사적 측면에서 위아래를 잇는 가교로써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변새시든 염정시든 白湖 임제의 한시는 중국 한시의 전통을 이어 조선적인 채취를 강화하면서 17세기 후반 이래의 조선적인 당풍을 예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7세기 초반 조선의 시단은 중국의 복고

풍을 배워 ‘詩必盛唐’을 외쳤다. 당시의 문인들은 전대 삼당시인 등이 이룩한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두보와 이백의 본령에 이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복고 바람이 한바탕 문단을 휩쓴 후에야 조선적인 한시에 대한 모색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군의 시인들은 송시의 說理性을 따르면서 조선적인 생각과 감정을 시에 붙여 넣으려고 하였고 또 다른 시인들은 조선의 농촌 현실을 청신한 당시 스타일로 묘사하여 조선적인 당풍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임제는 후자의 先聲이라 할 만한데 제주 풍토를 묘사한 그의 대표작 「南溟小乘」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 그간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부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려 한다.

첫째, 白湖는 「南溟小乘」의 서술 방식으로 기록 자체는 대체로 日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중간 중간 그날에 지은 시를 附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와 산문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산문의 딱딱함을 유희시키고 서정적 효과를 아우르도록 하였다.

둘째, 그의 시 세계에서 타고난 임협의 기질 그리고 중앙 정계로 진출하지 못하고 인생의 황금기를 변방에서 떠돌아야 했던 울분과 강개 등의 요소가 임제 한시의 미학을 형성한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기질적 호방성이 그로 하여금 자연에 몰입하게 하였다.

셋째, 그의 시 세계에서 하나 더 특기할 일은 그가 제주의 풍토를 묘사함에 대상을 시화하여 자세히 관조하여 풍물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冲庵의 「濟州風土錄」에서 비롯된 제주 풍토에 대한 묘사는 구체적 여행의 과정이나 풍물의 소개 혹은 민정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관심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의 특산품 굴에 대한 관심은 비록 白湖가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南溟小乘」의 끝자락에 <橘柚譜>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더구나 청음의 「南槎錄」에서는 감귤류 進貢數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특기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창식, <임제 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 박입규, <임제의 한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1.
- 서정희, <임제의 시문학 연구>,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 윤주필, <임제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1.
- 박운수, <백호 임제의 시문학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 정확성, <임백호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5.
- 채경자, <백호 임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소재영, <임제의 '남명소승' 고>,
 윤치부, <임백호의 '남명소승'고>, 《탐라문화》7,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이종묵, <백호 임제 한시의 문예미학>.
- 줄 고, <북헌 김춘택의 수해록의 한 국면>, 《한문학 연구》 17집, 계
 명한문학회, 2002.
- ,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 고찰>, 《영주어문》, 2005.
- , <석북 신흥수의 『탐라록』고찰>, 《영주어문학》제8집, 2004.
- , <지방문학으로써 석북의 한시>, 《동아인문학》제6집, 2004.
- , <동계 정온의 제주 유배 시 고찰>, 《동아인문학》제11집, 2006.
- , <병와 이형상의 한시 연구>, 《계명한문학》제14집, 2000.

<Abstract>

Study on 'Nammyongsoseung' of Lim Je (Baekho)

Boo Young-kun

This thesis surveys the approximate 4 months during which Lim Je (pen name, Baekho) stayed in Jeju-do when he visited his parent living there after passing the state examination at the age of 28.

As known well, he was a literary man who lived a short but solid life. During his lifetime, he showed this outstanding literary talent to the full, and his works show his spirit sufficiently.

In particular, during the 4-month stay in Jeju, he depicted what he felt looking at the landscape of Jeju with his unique literary capability. The collection of works written during such period is 'Nammyongsoseung'. Accordingly, the present author incorporates this study into the literature of visitors describing the landscape of Jeju, and is to develop it as a part of existing scope of study.

This study produced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within a framework of Sino-Korean literature which described the scenery of Jeju. The present author hopes that subsequent studies will follow on the basis of this study.

- Key words: travel literature, scenery, natural environment